

## 地理教育科의 目標와 發展 方向에 關한 研究

황재기

이기석

황만의

김종욱

(지리교육과)

### I. 序 論

서울大學校가 해방된 조국의 희망을 안고 1946년 國立 綜合大學으로 개교되었을 때, 師範大學은 이 나라 教育을 책임질 인재의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속의 한 單科大學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 師範大學 내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地理學 및 地理教育에 관련된 學科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地理教育科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地理教育科는 오는 1995년이 되면 학과가 설치된지 半世紀에 이르는 긴 歷史를 지닌 학과가 된다. 그간 地理教育科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教育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리학의 產室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오늘날 地理教育科는 앞날을 위한 새로운 位相 定立과 보다 효과적인 發展 방향의 모색이 절실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어진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교원 임용고시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사범대학 教育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 의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로 서울대학교가 연구 중심 또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 방향을 전환해 감에 따라 사범대학 教育전반에 걸쳐 새롭게 위상을 정립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地理教育科의 목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첫째 2000년대를 指向하는 오늘의 입장에서 地理教育의 重要性과 課題 및 그 目標은 무엇이며, 둘째 현재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地理教育의 目標과 課題를 實現하기 위한 學科의 指標은 무엇이며, 셋째 나아가 本 學科 教育課程의 基本原則, 教授人力과 教育 및 研究 支援 施設의 確保 등이 어떠한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

제를 구명하고자 노력하였다.

## II. 地理教育의 目標와 課題

地理學의 연구와 그 教育은 타분야 못지 않게 오랜 傳統과 歷史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地理科目이 각급 學校教育에서 왜 주요 科目으로 가르쳐져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地理科 教育은 왜 필요하며, 그 目標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어 왔다. 여기에서 그간에 논의되고 발표된 내용들을 간략히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地理教育의 目標

지리과 教育의 기본적인 目標은 황재기(1991)에 의하면 올바른 민주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로 요구로 되는 人格과 知覺의 형성, 내면적인 통찰력의 함양, 자아의 실현 등에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학습 과정과 연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地理教育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地域 속에 숨겨져 있는 自然的·文化的인 諸 現象과 이들의 相互 關聯性을 綜合·分析함으로써 여기에 內在된 法則性과 조화의 원리를 인지하게 한다.

(2) 또한 한 地域의 다양한 현상 속에서 地域의 特色을 찾아내고, 이를 다시 다른 地域의 그것들과 比較·分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3) 이러한 學習過程을 통하여 地理教育은 학생들로 하여금 넓은 視野에서 事物을 觀察하게 하고, 相互 比較·檢討할 수 있는 眼目을 갖게 한다.

(4) 또한 이러한 過程을 통하여 個人間, 地域間, 國家間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한 個人이나 한 地域 또는 한 國家만으로는 社會나 국제간의 평화와 안정된 발전이 이룩될 수 없음을 아는 民主 市民의 성숙된 人格과 知覺을 갖게 한다.

(5) 더 나아가 地理教育은 학생들의 觀察力과 推理力을 신장시키며, 空間組織, 空間分布, 地域聯合, 空間的 相互作用 등과 같은 組織 概念에 基礎하여 事物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知覺과 眼目이 길러지게 한다.

### 2. 地理教育의 課題

앞에서 기술한 地理教育의 目標을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몇 개의 항목별

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地理教育의 원류인 地理學의 發展과 함께 하는 地理教育: 地理教育의 원류인 地理學의 發展은 곧 地理教育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일반적으로 지리학의 발전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자기자신의 領域을 研究 開發해 나가는 것이며, 둘째는 研究 開發된 地理學 內容을 國家와 社會의 發展을 위해 應用되도록 擴散시키는데 있다.

여기에서 地理教育은 바로 研究開發된 地理學의 內容을 教育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속으로 擴散시키고, 그 결과가 國家나 社會의 發展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地理學 자체의 發展에까지 還流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地理教育은 지리학 자체의 연구 개발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關聯 他學問의 發展에 기여하는 地理教育: 地理學과 地理教育은 歷史·社會·政治·經濟·文化 등의 人文社會科學과 地形·地質·海洋·氣候·生物·環境 등의 自然科學 등 관련系統學問의 發達을 위한 바탕을 제공하고, 이들 학문과의 均衡과 連繫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必須的인 教科이다.

만약 初·中·高校 教育에서 地理教科를 제외했다고 가정했을 때, 위에서 열거한 人文, 社會, 自然 등 여러 계통科學의 학문 分野가 어떻게 發達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상상해 보면 地理教育의 役割과 重要性이 새롭게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地理教育은 인접한 제 과학과 나란히 발전을 거듭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地理學과 地理教育은 그 학문의 성격상 自然科學과 人文社會科學의 關聯性을 맺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흔히 地理學을 自然과 人文社會科學의 Bridge-Science(連繫科學)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3) 한 國家, 한 民族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민족 發展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地理教育: 우리는 地理教育을 통해 한 國家나 地域의 지형, 기후, 資源, 産業, 都市, 人口 등의 相互關係를 綜合的으로 理解함으로써, 鄉土와 地域 또는 國土를 사랑하고 나아가 고향사랑, 나라사랑과 같은 국민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뿐 아니라, 世界 各 地域의 지형, 기후, 資源, 産業, 都市, 文化 등을 綜合的으로 理解하고 比較·檢討함으로써 世界 속의 韓國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스스로의 나아갈 길을 터득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한다.

여기에서 유럽 여러나라들의 예를 들면, 地理上의 發見時代 이후 전 세계를 유럽화시키는 過程에서 地理的 知識이 그 中心的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英國의 경우는 19세기부터 地理學을 商工業의 發達과 世界로 진출하는데 가장 유용한 教科目으로 인정하고 이를 教育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傳統은 오늘날에도 英國, 獨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많은 유럽國家들

에 그대로 전승되어 地理教育은 他教科에 비하여 특히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國土가 좁고 天然資源이 빈약한 반면, 人口密度가 높은 國家가 國際社會에서 文化的·經濟的인 先進國으로 도약하려면 地理教育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참 人間化를 위한 地理教育: 그간 우리民族은 긴 歷史를 통해 좁은 國土 위에서 外勢의 끊임없는 도전과 침략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 新教育이 이땅에 도입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時代가 열릴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으나, 곧 장기간에 걸친 日本의 식민지배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된 人格과 民族意識을 위한 地理教育의 目標가 抹殺되고 오히려 저들의 정책적 目標에 추종하는 歪曲된 地理教育이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영향은 해방 이후에도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教育課程 개편 때마다 약간의 수정과 보완만으로 점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그간의 地理教育은 올바른 目標에서 유리된 채, 事實의 羅列과 暗記위주의 “人間不在와 意識不在”의 教育으로 일관되어 왔고, 이런 地理教育을 받은 인사들이 오늘날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地理教育의 위기를 낳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人間不在와 意識不在의 地理教育 결과에 따른 보다 심각한 問題는 참된 人間化를 위한 地理教育의 不在를 가져와 오늘날의 우리 국민들의 人格形成과 知覺形成에 커다란 결함을 招來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넓은 視野와 깊은 眼目으로 각종 現象들을 觀察하고 理解하며, 事實에 입각하여 각종 現象들을 比較·檢討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知覺이 先進제국들의 국민들에 比較하여 극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地理教育의 참된 目標에 맞는 內容과 방법의 일대 개혁에 의하여 참된 人間化를 위한 地理教育의 方向을 모색하고, 또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5) 快適한 環境을 위한 地理教育: 地理學과 地理教育은 人間과 自然과의 相互關係 및 地域 組織에 관한 內容이 그 中心을 이룬다. 오늘날의 環境問題는 人間이 土地·鑛物·森林·陸水·海洋 등의 自然資源을 과도하게 開發 利用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自然의 毀損과 生態界의 破壞에서 招來된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의 連繫科學으로 불리우는 地理學을 教育하는 地理教育이야말로 環境教育의 직접적인 中心教科로서의 그 임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地理教育은 각 地域의 自然의 人文的인 諸 現象의 分析과 결과의 綜合·比較·檢討가 그 內容의 中心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地理教育은 環境의 分析과 自然과 人間과의 조화로운 環境

의 地域的 組織 및 比較를 통해 人間을 위한 快適한 環境을 마련하는 教育內容 開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6) 國際 理解를 위한 地理教育: 오늘날의 世界는 交通·通信 情報網의 發達로 地球村 전체가 하나의 生活圈이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빈약한 天然資源에도 불구하고 좁은 國土 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人口密度를 갖는 나라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地球村의 수많은 나라들과 政治·經濟·社會·文化 등의 各分野에 걸쳐 깊은 關係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만약 단 며칠 몇 주간이라도 우리가 國際關係를 완전히 끊고 지낸다고 가정했을 때, 食糧·에너지·工業原料는 물론 국민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대혼란과 파탄이 招來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地球村의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國際化와 開放化에 따른 國際 理解 教育에 힘써 나가야 할 시기이다. 또한 오늘날의 國際 理解는 단순한 言語의 구사력이나 商品의 교환에 앞서 구조적이고 組織的인 知識體系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누구나 認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00년대의 經濟的 先進國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地理教育을 통하여 資源과 商品의 교역 바탕을 굳혀나가야 할 것이다. 地理教育은 본래 世界 各 地域의 自然的·人文的 現象들의 相互關聯성과 그 결과의 綜合 및 比較 分析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地理教育에서는 國際化와 開放化 時代를 맞아, 國際理解를 增進시킬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組織的이고 구조적인 內容의 開發과 地理的 情報의 分析에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7) 地方化 時代를 對備하는 地理教育: 앞으로의 社會는 民主化와 地方化 時代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地理教育은 다양한 地域調査와 地域 研究에 關聯된 活動에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그 결과를 比較·分析·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 教育內容의 開發과 실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내 고장은 自然과 人間의 장기간에 걸친 相互作用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며, 앞으로의 地域發展을 위해서는 이들 要素들의 보다 효과적인 결합이 필요함을 地理教育을 통해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統一에 對備하는 地理教育: 1990년을 전후한 동구 및 소련의 탈공산화 움직임은 멀지 않아 韓半島에서의 南北統一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地理教育에서는 統一에 對備하기 위해서도 北韓에 關聯된 地理的 內容의 開發과 이의 교재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地理教育 內容에서 볼 수 있는 北韓에 關聯된 부분은 자료의 빈

곤과 보안상의 問題도 있겠지만, 그 內容이 피상적이고 지나치게 빈약한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결과는 地理教育이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며, 統一에 대비하는 준비의 미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 III. 地理教育科의 歷史와 現況

#### 1. 地理教育科의 歷史

本 學科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創設되었다. 이는 地理學 系列의 學科로서는 우리나라 最初로 設立된 것이었다. 當時의 學科 名稱은 師範大學 社會生活科 地理專攻이었는데, 1950년에는 社會生活科에서 地理科로 分離 獨立되었다. 사회계열 학과들과의 통합과 분리는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즉, 1953년과 1961년에는 社會生活科內의 地理專攻으로, 1956년과 1982년에는 地理科 또는 地理教育科로 개편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는 실상 行政 組織上의 변화에 불과했으며,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지리 전공으로 있을 때나 地理教育科로 있을 때나 거의 변함이 없었다. 다만 한 學科內의 1개 전공 분야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연구 및 교육 지원에 있어서 보다 不利한 立場에 있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회교육과내의 지리전공으로 있었던 60-70년대에는 學科에 5명의 教授(이지호, 김상호, 이찬, 황재기, 이병설 教授로서, 이들 중 이찬 教授는 教育大學院 소속이었음)가 있었으나, 地理教育科로 昇格이 되었던 80년대에는 오히려 4명으로 줄어든 사실이다. 1975년 학과의 統廢합을 전제로 한 서울대학교 綜合化안에 따라 두 名의 教授(김상호, 이찬)가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로 移籍했기 때문인데, 수년간의 실험 기간이 실패로 끝나 이전처럼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와는 사실상 別個로 운영되는 체제로 還元이 되었음에도 教授 數만은 원래대로 복원되지 못하였다. 그 이래 1993년인 오늘날까지 근 20年間을 4명의 教授陣만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지호, 이병설 教授가 停年 退任과 事故로 教壇을 떠나고, 황재기, 이기석, 황만익, 김종욱 教授가 교단을 지키고 있는 점이다. 한편 大學院 과정은 碩士과정이 1963년 그리고 博士과정이 1985년에 設置되었다(표 1참조).

비록 교수 數는 數十年間 변한 바가 거의 없지만 그들의 研究 및 教育 활동은 매우 各別한 것이어서 그간 지리학 및 地理教育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至大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89년 현재 全國 地理系列學科의 교수 111명 중 본과 學部 출신의 教授가 46명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大學院 卒業生까지 포함하면 그 數는 더욱

표 1. 學科 沿革

1946년	師範大學 社會生活科內에 地理專攻 新設
1950년	師範大學 地理科로 分離
1953년	師範大學 社會生活科內 地理專攻으로 改編
1956년	師範大學 地理科로 分離
1961년	師範大學 社會生活科 地理專攻으로 改編
1962년	師範大學 社會教育科 地理專攻으로 學科名 改稱
1963년	教育大學院內에 地理專攻으로 碩士課程 新設
1975년	教育大學院 廢止. 大學院 社會教育科 地理專攻(碩士課程) 改編
1982년	師範大學 地理教育科로 改名과 더불어 擴大 改編
1985년	大學院內에 社會教育科 地理專攻으로 博士課程 新設

표 2. 卒業生의 進路 現況(1991年末 現在)

대학교수	65명	중등학교 교사	397명
장학관	7명	연구원	11명
기업체 종사자	12명	공무원(일반직)	16명
해외이민	46명	기 타	170명

많은 데 1991년 현재 65명이 大學 教授로 活動하고 있어 전체 지리 교수의 절반을 훨씬 上廻한다.

學問 分野 뿐만 아니라 中等學校 地理教育 분야에 대한 本 學科의 寄與는 매우 두드러진 것이었다. 이는 學科의 역사가 전국에서 가장 오래데다가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中等學校 敎職(1991년말 현재 724명의 졸업생중 404명)에 進出한 것에 起因한다(표 2 참조). 이들의 대부분은 中等學校에서 地理敎師로서의 所任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어 地理教育 발전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그들중 일부는 獎學 및 研究職에 從事하여 地理教育의 根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학원 과정에서는 1966년에 황재기(現 本 學科 敎授) 당시 碩士가 1호로 학위를 取得한 이래 1992년말 현재 100명의 석사가 輩出되었다. 이들 중 29명은 大學敎授로 活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中等學校 敎職에 종사하거나 해외 유학 또는 本 科의 박사과정에 在學중이다. 博士는 1992년에 남상준, 유재명 그리고 1993년에 서태열이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들 모두는 地理教育 分野에 관한 論文을 써서 地理教育 분야가 보다 활성화되는 轉機를 마련하였다.

2. 地理教育科의 現況

本學科의 現況을 教授, 學生 및 教育課程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專任教授는 황재기, 이기석, 황만익, 김종욱 教授 등 4명이다. 이들이 교육 책임을 지고 있는 學部生은 93년 1학기 현재 96명(등록생수 기준; 입학정원 25명)이며, 大學院生은 24명(등록생 수 基準; 석사 입학정원 11명; 박사 입학정원 3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教授 1人

표 3. 學部 및 大學院의 講座

① 학부과정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1 학 기	*인문지리학  *자연지리학	*기후환경론 *경제지리교육론 유럽지지 *지도학	*자원지리 지리자료분석 *한국지리 환경지리교육론 인문지리조사 및 실습	지리학습이론 아프리카·오세아니아지리 사회 및 행태지리학 지리정보론과 원격탐사
2 학 기	*지리교육론 *문화·역사 지리학 아시아지리	*지형학 *도시지리학 *지리교과연구 인구지리학 아메리카지리	*자연지리조사 및 실습 촌락지리학 컴퓨터지리학습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러시아지리	정보 및 유통지리 정치지리학 지리사상사 경제활동과 입지

\*전공필수과목

② 대학원과정

석사 과정	한국지리특강 자료분석법연습 교통지리학특강 사회지리학특강 토지이용연구 기후지형학 기후환경론연구 원격탐사와 지리교육	세계지리학특강 역사지리학특강 사회지리학특강 촌락지리학특강 경제지리학특강 지형학특강 미기후학특강 지리교재특강	문화지리학특강 지리교육과정특강 촌락지리학특강 산업체계론 입지론특강 한국지리형발달 자원론특강	인구지리학특강 도시구조론 도시체계론 지리사상사특강 지도학특강 하천지형 자원개발과 관리
박사 과정	지리교육론연구 지리교육사연구 지리교육세미나 지리교육공학	지리교수 및 방법론 국토지리교육연구 지리교육자료분석 지리교육정책연구	지역지리교육연구 환경지리교육론 비교지리교육론	



當 平均 30명(학부 24명, 대학원 6명)의 學生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開設되어 있는 講義 科目들은 앞의 <표 3>과 같다.

#### IV. 地理教育科의 課題와 發展方向

##### 1. 地理教育科의 指標와 教育課程

###### (1) 學科의 指標

本 學科에서는 師範大學의 다른 여러 學科의 경우와 같이, 전통적으로 학부과정에서는 中等 學校 教師養成을 가장 중심이 되는 指標로 삼고, 大學院 課程에서는 單純한 教師 養成 보다는 地理教育 專門家 및 地理學者 양성을 지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最近에는 교원임용에 대한 國家 政策의 변화와 학내외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상기한 학과의 指標를 그대로 堅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그러한 상황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부터 施行된 師範大 卒業生에 대한 教員 任用考試 制度의 導入 결과, 졸업생중에서 극히 제한된 少數만이 교원으로 任用되고 있어서 학부과정에서 교사양성만을 學科의 지표로 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本 學科의 지표는 여전히 中等학교 교사 양성에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비록 소수일 망정 어느 教育기관에서든 有能한 中等教師를 양성해야만 한다는 것은 임용제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다른 教育기관은 몰라도 가장 우수한 地理教師 양성기관인 本 學科만은 교사 양성의 責任을 外面해서는 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相關 학과가 일반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綜合大學內의 師範系 學科라는 本 學科의 役割과 機能을 고려할 때 그러한 교사 양성의 지표는 차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地理教育 專門家 및 地理學者의 양성에 두고 있는 대학원의 지표 역시 차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이래 본 학과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학원의 지표를 碩士와 博士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럴 경우 석사과정은 지리학 및 地理教育 전문가의 양성, 박사과정은 지리교육학자 및 지리학자의 양성을 주된 教育 목표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여기서 지리학 및 地理教育 전문가란 大學教授 이외에 地理學 및 地理教育 분야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사실 박사과정의 指標를 지리학자와 지리교육학자의 양성에 둘 경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문제시 되는 것은 현재 本 學科의 教育課程이 教科教育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 純粹 地理學者의 양성에는 적합치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졸업생에게 부여되는 학위가 教育學 博士이므로 졸업생들이 純粹 地理學者로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理學者와 地理教育學者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教科教育만을 전공한 지리학자로서는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지리 관련 학과로 진출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純粹 地理學 분야와 비교할 때 教科教育 분야는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로만 한정할 경우 대학원의 기능 자체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현금까지의 本 學科의 位相과 地理學의 장래를 고려할 때, 本 學科의 博士課程에서 純粹 地理學者를 양성하는 기능은 존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 (2) 教育課程

本 學科의 機能과 役割을 분명하게 定立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과정의 學科의 指標에 부합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本 學科의 教育課程은 크게 教科教育과 專攻教育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이 두 분야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教科教育 分野야말로 本 科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특히 力點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專攻教育에 비해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다(표 3, 5 참조).

첫째, 本 學科에는 地理教科教育이 主專攻인 教授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는 教科教育의 발전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그를 전공한 국내외 학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기인한다. 본 학과의 경우 1992년에서야 教科教育을 전공한 박사를 배출하였다.

둘째, 地理教科教育은 전공영역에 비하여 學的인 體系가 잘 定立되어 있지 못하다. 즉, 地理教科教育은 어떠한 과목으로 細分되어야 하며, 그 각개 과목의 內容 構成은 어떠한가 하는 것인지에 對해서는 국내외간에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척되어 있지 못하다. 그에 따라 擔當 教授에 따라 教育內容에 많은 차이가 있어 왔으며, 科目間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중요 教育內容이 漏落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학부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과교육 과목들은 표 4와 같다.

大學院에서 제공되는 地理教科教育 과목은 석사과정에서는 현재 한 과목만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 박사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教科教育 과목으로 되어 있다. 이들 박사과정 과목의 일부는 박사과정이 개설되기 이전에 석사과정에서 제공되던 과목이 옮겨진 것도 있다. 그 결과 석사과정에서는 教科教育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도 졸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석·박사과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석·박사과정의 구분없이 강의과목을 선

〈표 4〉 지리교과교육 과목

학 년	지리교과교육 과목	학점	비고
1	지리교육론	3	필수
2	지리교과연구	3	필수
2	경제지리교육론	3	필수
3	지리교재 및 지도법	3	필수
3	환경지리교육론	3	선택
3	컴퓨터지리학습	3	선택
4	지리학습이론	3	선택

택할 수는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敎科敎育 과목들은 주로 박사과정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전공교육 분야는 교과교육 분야에 비하여 本 學科의 敎育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체계적으로 敎育되어 왔다. 또한 교과목 개설시 系統地理學, 地域地理學, 學史 및 分析技法 등 각 학문 영역 간의 안배도 고려하였으므로 학생들은 純粹 地理學에 대한 지식을 균형있게 습득할 수 있었다. 다만 동일계 학과인 地理學科의 교과목과 그 명칭, 내용 및 구성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後述할 學科의 課題와 發展 方向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2. 地理教育科의 課題와 發展 方向

(1) 學部에서의 敎科敎育과 專攻敎育

① 敎科敎育

地理教育科가 종합대학 내에서 그 특수성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과교육과 전공교육의 특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 본 학과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敎科敎育 분야이다.

敎科敎育이 하나의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서 수행해야 할 課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돈희, 1987). 즉, 敎科의 理解, 敎科의 正當化 및 敎科의 運營이다. '교과의 이해'란 지리과목의 내용 및 그의 교육적 가치를 밝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지리과목의 내용적 본질과 특징에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리교과의 敎育을 正當化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교과목의 정당화'란 지

리과목의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지리과목이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것은 지리과목의 교육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地理科目은 과목 내용의 특성상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기 대단히 적합한 과목이다.

세번째 課題로 지적한 教科의 운영원리, 즉 地理教科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과 이것을 학습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적 원리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과제 '교과의 이해'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師範大學에서 제공하는 교직과목들이 근본적으로는 교과 운영 원리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의 地理教科 교육에 적용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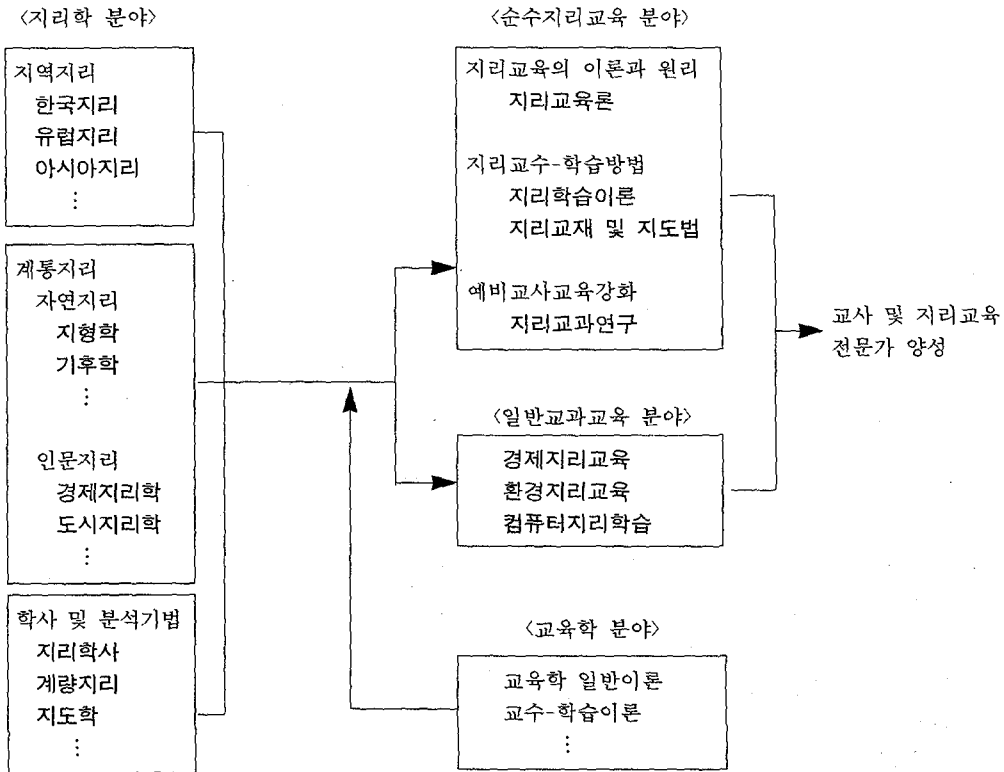
地理教科 내용이 구체적으로 教育活動에 의미있게 조직되고, 학습과 교수 활동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地理教科의 내용과 그것이 實際生活에 적용되기에 교과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適合하며, 왜 적합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아울러, 주어진 내용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本學科의 教科教育은 각 과정별 안배가 다소 결여된 것으로 생각된다(표 5 참조). 표 5에서 純粹 教科教育 科目은 地理教育論, 地理學習理論과 같은 教科目, 一般 教科教育 科目은 經濟地理教育 또는 環境地理教育과 같이 地理學의 특정분야와 관련된 教科教育 과목을 말한다.

地理教科教育이 어떠한 기본적 틀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돈희(1987)가 제안한 틀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는 教科教育의 기본적인 틀을 각 교과목의 教育史의 설명, 教育哲學의 분석, 教育社會學의 이해,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원리, 교육방법의 원리 및 교육제도적 이해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本學科에서 제공하고 있는 教科教育科目으로는 학부에서는 地理教育論, 地理教科研究, 地理教材 및 指導法 및 地理學習理論 등을 들 수 있다. 이들과 他 과목간의 연계는 <그림 1>에서와 같다. 한편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리교육사, 지리교육론 연구, 지리교수 및 방법론, 지리교재특강, 비교지리교육론,

〈표 5〉 현행 교육과정의 영역별 과목수

과정	순수교과교육	일반교과교육	전공교육	합계
학부	4	3	25	32
석사	1	1	27	29
박사	8	4	0	12



\*고딕체는 본과 개설 교과목

〈그림 1〉 학부과정의 교과목 상호관계

그리고 지리교육정책 등이 개설되어 있다(표 3 참조).

② 專攻教育

地理教育科가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갖기 위해서는 教科教育 뿐만 아니라 專攻教育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地理教育科의 專攻科目의 내용이 종합대학내의 相關學科에서 가르쳐지는 專攻科目의 내용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教室에서 教師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지식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때 교사가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가르치는 일의 목적은 학생들의 知的 能力의 발달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教師가 특정 지식을 갖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思考發達 과정과 學習原理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地理教師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가치관과 문

화, 역사, 그리고 空間的 概念이나 美的 概念 등과 같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도 갖추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며, 또 왜 필요한 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授業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가 갖는 지식의 폭에 따라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은 그 水準과 內容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 학생들의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공지식은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고 올바른 價値觀이 결들인 것이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합대학내의 非師範系 學科에서는 학문 연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지식만을 또는 전체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師範大學와 非師範系 大學의 地理專攻 교육은 차이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教育課程의 구성에서 지리교과교육 과목과 전공영역 과목이 어떠한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教科教育和 專攻教育의 비율은 1:3이 적당하다는 황정규(1986)의 주장이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비율을 지킨다면 학부과정에서는 教科教育 과목을 12-15학점, 專攻科目을 50-53학점이 되는데, 이는 전공학점이 63학점이라는 가정 하에서 제안된 것이다. 本 學科에서는 교직과목을 제외한 教科教育和 專攻科目에서 도합 63학점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수 教科教育 과목을 4개(12학점), 그리고 일반 教科教育 과목을 2개(6학점)를 개설하고 있으므로 上記한 比率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상을 통하여 학부에서의 교과교육과 전공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교사양성 교육과 관련하여 학부생이 장차 선택하게 될 직업인 교직에 관해 잠시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教職이 專門性을 갖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專門職이란 직업적으로나 사회 制度的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專門家란 개인과 사회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職能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Howsan, 1976). 이 정의에 따르면 教職이란 확립된 사회제도에 의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제공하는 직업이다. 教師들은 教職이 전문직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반면에, 사회로부터는 전문직으로서의 인정을 확고하게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한 主된 原因은 상당수의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과 전문적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教職 수행에 필요한 知識과 專門的인 기술을 새로이 습득하거나 그를 증진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中等學校 教師로 나가든, 혹은 大學校의 教授로 진로를 택하건 간에,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教職에 대한 뚜렷한

價値觀을 가지며 전문성을 기르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그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 또한 敎師 養成 教育에 받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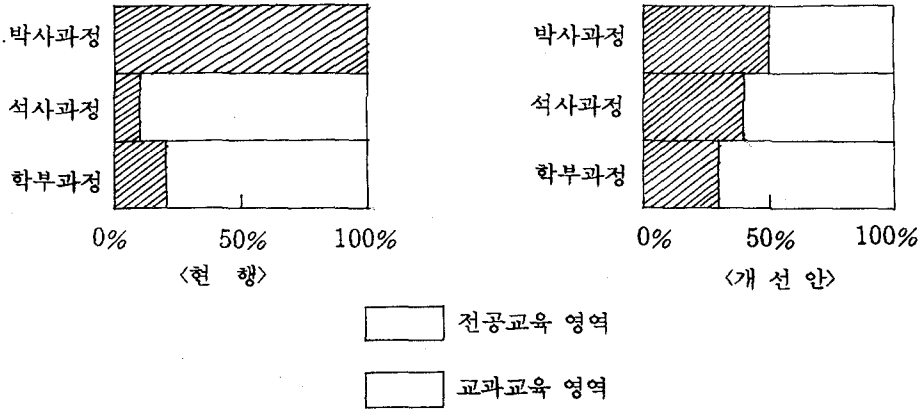
(2) 大學院에서의 敎科教育과 專攻教育

차경수(1987)는 대학원 과정의 敎科教育 과목과 專攻科目의 비율에 관한 연구에서 그 比率을 1:1로 提案하고, 그의 산출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大學院 과정에서는 基本科目으로서 목표론, 내용조직론(교육과정론), 지도론, 제도와 정책론, 교사론, 연구방법론, 역사적 연구, 비교연구 등의 8개 과목이 개설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중 목표, 내용, 지도, 제도 등의 4개 기본영역을 포함하여 4-6개 과목이 개설된다고 할 때, 석사과정에서는 4개 과목인 경우에 석사과정 履修에 필요한 총 24학점(또는 8개 과목)의 50%에 해당되고, 박사과정에서는 6개 科目으로 할 경우에 총 36학점(또는 12개 과목)의 50%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제안에 따르면 本 學科의 석사과정에서는 최소 3개의 純粹 敎科教育 科目을 더 개설할 필요가 있고, 박사과정에서는 오히려 그 과목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박사과정에서 敎科教育 科目과 專攻科目의 比率 調整이 필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오늘날 대학원 졸업생들의 進路와 관련되어 있다. 박사과정에서는 졸업생들이 대학교수로의 진출에 따른 문제를 最小化 할 수 있도록 敎科課程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전국의 師範大 및 非師範系 大學의 地理教育科 및 地理學科 교수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5명 내외로 교수 한사람이 몇개의 분야를 맡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勘案할 때, 박사과정에서 지리교과교육만을 전공하는 경우보다는 전공영역에서도 전문가적 자질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점에서 박사과정에서 敎科教育 科目과 專攻科目의 比率을 1:1이 되도록 調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경수의 제안은 타당하다고 본다.

학부,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敎科教育 科目과 專攻科目의 現行 構造와 尙차 改善되어야 할 理想的인 구조를 비교하면 그림 2와 같다. 現行의 구조와는 달리 改善案에서는 학부에서 석·박사과정으로 갈수록 敎科教育의 비중이 일관성있게 커지도록 組織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석사과정에서는 敎科教育이 현재보다 더 強化되고 박사과정에서는 그 比重이 줄게 된다.

한편 박사과정 卒業生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教育課程의 改善과 더불어 박사학위 論文 提出 要件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本 學科에서는 박사과정생이 敎科教育 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에 대한 專門家로서 그 資質을 함양할 수 있도록 學位 論文提出



\* 개설 강좌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그림 2〉 지리교과교육과목과 전공과목의 구성

資格要件을 개선하는 內規를 마련하여 1993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敎科敎育에 관한 학위 논문을 쓰는 학생은 純粹 地理學 분야에 관한 論文을 한 편 이상 學術誌에 발표하도록 하고, 그와는 반대로 純粹 地理學 분야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은 敎科敎育에 관한 論文을 역시 한 편 이상 學術誌에 발표토록 하였다.

(3) 敎授 組織

現在 本 學科의 專任敎授는 4명으로 사범대학에서도 그 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그와 같은 敎授 數의 절대적인 부족은 敎育과 研究의 不均衡과 偏向性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敎수들에게 과다한 敎育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결과적으로 研究와 敎育의 質的인 低下를 초래할 可能性이 다분히 있다.

本 學科는 서울대학교의 종합화가 시도되었던 1975년 이래 현재까지 3명 내지 4명의 敎授陣만을 근근히 유지해 온 관계로 그와 같은 문제들이 本源的으로 內包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를 해결키 위한 대책들을 일찍부터 모색하여 왔다. 물론 그 근본적인 解決策은 敎수 數의 增員에 있으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위한 노력을 不斷히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敎育과 研究를 중단없이 발전시킬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本 學科에서는 專任 敎授들의 敎育과 研究활동을 振作시키기 위한 不文의 內規를 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에 의하면 本 科의 專任敎授는 학부과정에서는 敎과 내용 및 敎과 敎育 분야 전부에 대하



여 교육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즉, 교수 1인당 교과 내용 분야중 系統地理學 분야에서 1개, 地域地理學 분야에서 1개, 그리고 教科 教育 분야에서 1개 과목을 최소한의 교육 전문 분야로 정하여 강좌를 담당해야 한다. 단, 대학원 과정은 학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수의 주된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강좌를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나 권고가 없이 전적으로 교수의 자율적인 판단과 學的인 관심에 맡기기로 하였다.

현재 專任教授들이 학부과정에서 맡고 있는 주된 강좌들은 표 6에서와 같다.

그러나 學科 교육의 正常化를 위한 이상과 같은 노력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교수 數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필요 불가결한 학문 분야의 강좌들을 중심으로 學期當 10명(30學點) 정도의 時間講師를 위촉하여 왔다. 시간강사에 의한 교육은 장차의 교수 要員을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교육의 繼續性이 없고 책임있는 교육이 실시되기 어려운 점 등에서 허다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시간 강사의 교육 분담율이 本 學科에서와 같이 거의 절반(93년 1학기 기준 약 48%)에 달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정도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다고 하겠다.

本 學科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정상적으로 펴나가기 위해 필요한 最小限의 教授 數는 7명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人員이 4명이므로 3명이 더 충원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담당해야 할 주된 교육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계통지리학 분야: 문화·역사 지리학, 기후학, 인구지리학, 사회지리학
- 지역지리학 분야: 러시아지,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지
- 방법론 분야: 지리정보론, 항공사진과 원격탐사, 지도학, 계량지리학
- 교과교육 분야: 지리교육과정, 지리교육평가, 지리교재론

〈표 6〉 本 學科 專任教授의 주요 담당강좌

교수명	주된 교육 활동 분야		
	계통지리	지역지리	교과교육
황재기	자원론	아시아지	지리교과연구
이기석	도시지리학	한국지	지리교육론
황만익	입지론	아메리카지	지리학습이론
김종욱	지형학	유럽지	환경지리교육론

## (4) 適正 學生數

현재 本 學科의 學生 定員은 학부과정 25명, 석사과정 14명, 박사과정 3명이다. 그러나 장차에는 그 정원을 모두 다소 上向 調整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학부 졸업후 義務 發命을 받았으므로 教師 需給 狀況을 고려하여 學科의 定員을 調節할 必要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임용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이전과는 사정이 달라졌다. 現 상황 하에서의 학과 정원은 해당 학과의 교육 여건과 국가·사회의 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本 學科의 경우 現 교수 인원이 4명이므로 교수의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 수를 증원하는 것은 여러 문제들을 惹起시킬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본 학과가 전국의 지리학계와 지리교육계에 미쳐온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련학계와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數의 人才들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학과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학부의 入學 定員은 최소 35명은 維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석사과정에서는 교수 1인당 3내지 4명, 박사과정에서는 교수 1인당 1명의 指導 學生이 적당하다고 보면 現 교수 인원이 4명이므로 석사과정은 12명내지 16명 박사과정은 4명이 適正한 水準인 것으로 생각된다.

## (5) 教育 및 研究 施設

地理學은 自然科學의인 性格을 지닌 自然地理學 분야와 人文, 社會科學의인 性格을 지닌 人文地理學 분야로 大別된다. 따라서 各 個의 학문 분야마다 그 接近 方法이 매우 相異할 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施設이나 기자재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학문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教育 및 研究 支援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性格을 지닌 자연지리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지리학 분야를 단순히 인문·사회계열로 분류하여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각종의 實驗 및 實驗 기자재를 거의 갖출 수가 없으며, 따라서 정상적인 자연지리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處해 있다.

그 밖에도 지리학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컴퓨터와 地圖의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그의 效果的인 利用과 活用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또한 원할치 못한 형편이다. 또한 製圖室과 航判室이 구비되어 있으나 그에 相應한 지원이 거의 없으므로 有名無實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근래의 國際的인 學問 傾向이 實驗과 分析을 爲主로 하고 있으며, 地理教育 역시 그런 학문

적인 경향을 수용하고 있음을 勘案할 때, 이상과 같은 지원체제는 時急히 改善되어야 한다. 또한 지리학과 地理教育의 계열별 소속이 어디이든간에 自然科學 系列의 學科에 準하는 支援을 해야 정상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 V. 結 論

근래에 실시된 敎員任用考試는 그간 大學內外에 걸쳐 여러차례 제기되어 온 師範大學의 正體性 確立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本 學科의 位相을 새로이 定立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本 稿에서는 本 學科가 指向해야 할 目標과 그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만 할 課題들을 중점적으로 究明하고자 하였다.

研究 結果, 學科의 指標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장차에도 학부에서는 中等敎師의 양성,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地理教育 專門家, 地理教育學者 및 地理學者의 養成에 두어야 할 것으로 結論을 얻었다. 또한 그와같은 指標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教育課程, 敎授組織, 教育 및 研究施設 등을 큰 幅로 改善해야 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학부의 教育課程은 특히 敎科敎育의 強化를 土臺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履修學點의 上向 調整도 중요하지만 講座內容을 보다 體系化 시키는 한편, 敎科敎育의 새로운 領域을 開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經濟地理教育 또는 環境地理教育과 같이 專攻敎育과 敎科敎育을 接合시키는 各學科의 개발은 그의 한 方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本 學科의 발전과 本 學科가 그간 관련 학계에 미친 지대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는 敎科敎育 뿐만 아니라 純粹 地理學 분야의 연구 역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現行 敎科敎育 一邊倒의 敎育과정을 修正 補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學科의 발전을 堅實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敎育과정의 개선 뿐만 아니라 敎授 要員을 增員하는 것과 教育 및 研究 施設을 확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本 學科의 事情은 특히 劣惡하므로 그에 대한 長·短期의 對策이 學科 以上の 次元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연옥, 1990, 「사회과 지리교육론」, 교육과학사.  
 이돈희, 1987, “교과교육학의 성격과 과제,” 「사대논총」, 제3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p. 1-18.

- \_\_\_\_\_, 1987, "사범대학 교육의 체제와 운영," 대학발전 세미나자료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p. 1-12.
- 임덕순, 1986, 「지리교육론」, 보진재.
- 차경수, 1987, "대학원 교과교육의 본질과 발전과제," 「사대논총」, 제3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p. 37-56.
- 황만익, 1989, "대학원 지리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제 22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pp. 1-14.
- 황재기, 1991, "21세기를 준비하는 지리교육의 방향," 「지리학」, 제26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 216-221.
- 황정규, 1986, "사범대학 학부교과과정의 발전방향," 대학발전 세미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p. 9-14.
- \_\_\_\_\_, 1987, "사범대학(학부) 교과교육의 발전과제," 「사대논총」, 제34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p. 19-36.
- Boardman, D., 1985, *New Directions in Geographical Education*, London: The Falmer Press.
- Graves, N.J., 1984, *Geography in Education*, Heinemann Education Books, London.
- Howsan, R.B. et al., 1976, *Educating a Profession*,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 for Teacher Education, Washington, D.C.

**Abstract**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and Its Goals

Jae Kie Hwang

Ki-Suk Lee

Manik Hwang

Jong-Wook K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education goals of th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and explores a new direction that is being taken to reform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This endeavor is essential for the Department to secure specialties within the system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o adjust to the changes in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Major goals of the Department include the following: (1) teacher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2) training of geography education specialists in the graduate program; and (3) training of professors and scholars of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in the doctorate program. A prerequisite to the achievement of these goals is the development of various courses related to subject-matter pedagogic knowledge (including courses on geography teaching methods and learning theories). This course subject-matter is not offered in the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 Hence, these courses would be the core of th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is paper suggests several ways of organizing these subject-matter pedagogic geography courses, to be adopted in the undergraduate, graduate and doctorate programs of the Department.